

## “호남, 미래의 근간 탈바꿈할 때” 전폭 지원 약속

김민석 총리, 전남서 K-국정 설명회

“李대통령 호남에 대한 애정 진짜 ‘찐’ AI·우주·에너지 중심지 도약 잠재력 지방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남 대부흥”

김지사, 의대·RE100 국가산단 등 건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여권의 삼장부인 호남을 찾아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무안군 남악 소재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국정설명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번에 이달 들어 두 번째다.

K-국정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김민석 총리가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무총리실과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휴일임에도 도민 1천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이제는 전남시대” 전남도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특별강연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보였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호남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젓아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악무호남시무국가’ 전남은 AI, 우주,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

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발전이 늦은 곳일수록 국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균형 발전을 이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해 전남의 핵심 사업들이 국가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과 문희상 부이사장으로부터 전날 김 전 대통령 어록집을 선물받았다고 소개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총재였을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저 스스로를 김대중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호남 적통’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는 나온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잼플릭스’”라고 평한 뒤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때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 간 리더십도 비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AI·에너지 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김재정 기자

## 민주,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여성특구’ 논란

시당, 남구2·서구3·북구3·광산5 겸토  
남성 후보들 “형평성 어긋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을 여성 경쟁 전략 선거구(여성특구)로 지정하기로 해 해당 선거구 출마를 준비해 온 남성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지역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광주시당은 아직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여성특구 지정 선거구는 공식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남구 2선거구(현역 임

미란 시의원) ▲서구 3선거구(현역 이명노 시의원) ▲북구 3선거구(현역 신수정 시의원) ▲광산 5선거구(현역 박수기 시의원) 등이 지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광산 4선거구가 여성특구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일부 지역이 선거구 조정과 특구지정이 반복되며 장기간 ‘전략선거구’로 묶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막판에 광산 5선거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특구는 운영하지 않고 여성특구만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특구 논의 과정에서 사전 예고 없이 출마가 제한된 일부 남성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기간 해당 선거구 출마를 준비해 온 남성 예비후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특구 지

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노컷오포’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특정 성별의 출마만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명노 의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운영위원회 특구 지정 결정에 앞서 지방 선거기획단을 중심으로 사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특구 지정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을 찾기 어렵다. 특구 지정을 명분으로 한 보복성 컷오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 출근길 영하 6도 강추위…내일은 5mm 안팎 비

###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을 듯

이번 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영상권까지 오르는 등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영암·곡성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하 1도로,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23일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영하 2도~6도, 12~15도로 전날보다 따뜻하겠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 소식도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엔 비의 영향으로 최저(5~8도)·최고(8~13도) 기온 모두 영상권을 보이겠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최저기온은 영하 3도~3도, 최고기온은 3~7도로 전망됐고 눈 소식은 없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2일 최저기온은 전날 보다 5~9도 가량 낮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 松川(주)송천

전기공사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2(월출동 971-39, 2층)



양승환 대표이사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